

목포시, 원도심 거리 일대 간판정비로 '말끔'

원도심 청춘로 430m(영진할인마트~평화선구점) 구간 정비완료

내년 공모사업 선정...개항문화거리~건해산물거리 1.2km 정비

목포 원도심 개항문화거리 일대가 말끔한 얼굴로 새단장을 마쳤다.

시는 금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원도심 청춘로 430m(영진할인마트~ 평화선구점) 구간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월부터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총 7차례 전문가(옥외광고센터, 자문교수)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구간 내 주민들로 구성된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와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난 9

월 영진할인마트에서 평화선구점까지 총 160m 구간을 정비하고, 12월 오거리마트에서 힐링아로마까지 총 270m구간까지 총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구간 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이 철거되고 업소별 특색 있는 간판 설치와 더불어 노후건물 입면 정비를 통해 산뜻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야간경관개선을 통해 어두웠던 거리가 밝아져 대다수의 주민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사업 추진에 뜻을 함께 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신주 지중화 공사과 디자인도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해당사업이 완료될 경우 간판개선사업과 어울리는 거리의 경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원도심 개항문화거리와 건해산물상가거리 1.2km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위생업무평가 2개 부문 2년 연속 우수

영암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0년도 시·군 위생업무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과 음식문화개선 모두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8백만원과 포상금 50만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공중위생관리 분야, 음식문화개선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평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한 감염병 예방활동과 식문화개선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경 합계한 위생업소 현장 지도·관리, 희망일자리 방역활동, 마스크, 손소독제, 출입자명부 등 방역물품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국·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위생관리부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음식문화개선 부문에서도 도민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 찾아가는 음식점 1:1 맞춤형 교육, 식문화개선을 위한 수저정, 덜어먹기용품 지원·사용 독려, 위생등급제 지정 등 군이 추진한 위생관리시책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악취없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적극 육성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무안군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동물복지형 축산시설개선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3개 사업에 83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수입축산물과 국내 축산물의 시장경쟁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선진 친환경 축산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42억 원을 지원하고,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관련 8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4농가, 친환경인증 112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7농가, haccp 지정 74농가로 총 237농가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등 12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5월 농림부가 실시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액비유통센터(2개소)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사업비 4억 원을 배정 받기도 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시상금 3백만원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 주관 '2020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3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특히 센터 소속 농촌지도사 7명도 각 분야별 역량강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6개 분야에서 농촌진흥청장상(2명)과 전라남도지사상(5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센터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비해 온택트(Ontact) 방식의 디지털 영농교육을 운영하고 4차 산업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의 다각화에 주력했다.

또한 접제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친환경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유도하고 ▲미니수박 재배단지 확대 ▲양파 생력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돌머리권역 정원 사업 추진 등을 적극 추진했다.

김동표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장 대응과 시장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고부가 가치 농산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산물브랜드 통합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함평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코로나19 의심·불안하면 무료 검사 받으세요"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보건소를 포함한 3개 선별진료소에서 군민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일상 속 감염사례와 무증상으로 인한 전파 등이 계속되고 있어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기



존 선별진료소는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증상이 없

라도 의심되거나 불안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천사김 조미김

7천만불 수출탑 수상

신안천사김이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읍 학교리에 위치한 신안천사김 주식회사(대표 권동혁)가 2020년에도 국내 최고의 김 수출업체로서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당초 17일 영암 현대삼호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이 회사를 직접 방문, 수출탑을 전달 하였다.

신안천사김은 약 3,300억원의 조미김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매년 수출탑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